

# Management of the Recurrent UTI

한 창희

가톨릭의대

## 정의

- 직전 오로감염이 해소된 후 연이어 발생하는, 증상이 있는 오로감염
- 지난 12개월 동안 3회 혹은 6개월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

## 위험요소 – 폐경 전

- Sexual intercourse
- Diaphragm/Spermicide
- Antimicrobial use, Prior UTI
- Maternal history of UTI
- Childhood history of UTI
- Blood group antigen nonsecretor status

## 위험요소 – 폐경 전

- Behaviors
    - reduced fluid intake
    - habitually delaying urination
    - delaying post-coital urination
    - wiping from back to front after defecation
    - douching
    - wearing occlusive underwear
- 연관성 불확실

## 위험요소 – 폐경 후

- Lack of estrogen
- Incontinence
- Cystocele
- Post-void residual urine
- Sexual intercourse
- History of UTI before menopause
- Blood group antigen nonsecretor status
- Catheterization
- Urogenital surgery

### 급성 단순 방광염의 치료

- 단기간의 항생제 치료로도 좋은 효과
- 효과적인 항생제들
  - trimethoprim-sulfamethoxazole (TMP-SMX)
  - fluoroquinolones
  - beta-lactams (amoxicilline, bacampicilline)
  - fosfomycin trometanol,
  - nitrofruntantoin
- 치료기간
  - 단기 치료 → 복약 순응도 증가
  - 관찰되는 항생제의 사용기간은 3일

### 급성 단순 방광염의 치료

- 치료 후 추적 검사
  - dipstick 방법을 이용한 요검사로 충분
- 증상이 없는 여성에서 배양검사는 권장되지 않음.
- 치료가 끝나가는 데도 증상 오전이 없거나, 치료 후 2주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에는 항생제 감수성 검사가 필요.

### 재발성 요로감염의 예방

- 항생제 예방요법
- 에스트로겐 크림
- 크랜베리
- 성생활과 피임
- 프로바이오틱스 (probiotics)
- 면역강화 예방 (immunoactive prophylaxis)

### 항생제 예방요법

- 재발성 요로감염 환자 중 다른 예방대책이 실패한 경우 고려
  - 지속항생제예방
  - 성관계 후 예방
  - 자가 치료

Table 2. Antimicrobial Prophylaxis for Recurrent Urinary Tract Infections [2, 62]

| Antimicrobial agent           | Continuous prophylaxis (daily dosage) <sup>a</sup> | Postcoital prophylaxis (one-time dose) <sup>b</sup> | Acute self treatment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Cephalexin                    | 125 to 250 m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0 mg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|
| Oxytetracycline               | 125 mg   | 125 mg  | 250 mg bid for 3 days     |
| Nitrofurantoin                | 50 to 100 m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to 100 mg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|
| Norfloxacin                   | 200 mg   | 200 mg  | 200 mg bid for 3 days     |
| Trimethoprim                  | 100 mg   | 100 mg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|
| Trimethoprim/sulfamethoxazole | 40/200 to 80/400 m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/200 to 80/400 m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0/800 mg bid for 3 days |

<sup>a</sup>Typically taken at night [2].<sup>b</sup>Taken within 2 hours of intercourse [2, 61].

### 1) 지속항생제 예방요법

- 자주 재발, 짧은 성관계, 성관계와 무관한 재발인 경우에 효과적
- 이전 UTI 치료 후 요배양검사로 균 박멸을 확인 후 시작
- 시행 기간에만 예방 효과
- 약제 선택 : 알레르기, 과거 항생제 감수성, 지역사회 내성양상, 가격, 부작용 등을 고려
- 부작용 : 피부발진, 구역, 질/구강 칸디다증, 위장장애 등

### 2) 성관계 후 항생제 예방요법

- 요로감염 발성이 성관계와 연관이 있는 경우
- 1년에 3~4회 요로감염을 앓는 경우에 효과적
- 예방요법 시작 전에 배양검사로 세균뇨가 없음을 확인
- 성관계 후 2시간 안에 복용
- 약제 선택 : TMP-SMX, cephalosporines
- Fluoroquinolones : 효과적이나 일반적으로 권장 안됨  
∴ 임신 가능성, 태아에 대한 위험성 고려

### 3) 자가치료

- 성관계와 무관하게 단순 요로감염이 재발하는 여성
- 1년에 2~3회 재발하는 경우에 유용
- 확실하게 증명된 재발성 요로감염의 병력이 있고,  
동기가 있고,  
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의료진에 협조적인 여성
- 3일 분의 치료 앙생제 제공, 증상 발생시 자가치료 시작
- 48시간 안에 증상 호전 안되면 병원 방문토록!
- 주기적 요배양으로 요로감염 존재와 앙생제 감수성 확인

### 에스트로겐 크림

- 폐경 후 에스트로겐 젤필 → UTI 위험 증가
- 질 상피에 유산균의 증식을 촉진
  - 폐경 전처럼 산도를 낮추고, 장내세균의 질 정착을 억제
- 에스트로겐 치료 반응
  - 종류보다는 투여경로가 더 중요!
  - 국소 크림이 가장 효과적, 경구 투여는 효과 부족
- 부작용
  - 오방 암통
  - 질 출혈 비생리적인 분비물
  - 질 소양증

### 크랜베리

- proanthocyanidin  
→ UTI 예방 대장균의 요로상피 부착을 억제
- 항부착 효과는 섭취 2시간 후부터 시작, 10시간까지 지속
- 효과 (위약군 대조 비교임상)
  - 재발성 요로감염 있는 여성(RR 0.53)
  - 여성 인그침단(RR 0.49)
  - 18세 미만 소아(RR 0.33)
  - 알약/캡슐약보다는 주스를 복용한 경우(RR 0.47)
  - 마루 1회 복용한 것보다는 2회 이상 복용한 경우(RR 0.58)

### 크랜베리

- 노인 보다는 성적으로 활발한 여성에서 효과적
- 효과적인 섭취 용량, 농도, 기간 ???
- 부작용
  - 소화장애,
  - 체중증가(과도한 칼로리 섭취),
  - 장제적인 약물 상호작용  
(flavonoid가 cytochrome P450 효소계를 억제)
  - 고비용
- 장기간 복용에 적합한 예방대책은 아니다!

### 성생활과 피임

- 성관계 → 젊은 여성에서 가장 강하게 연관된 위험요인
- 성관계 없이도 대장균에 의한 재발성 요로감염 발생
- 성관계가 항상 재발성 요로감염을 초래하지 않음  
→ 막연한 금욕 권고는 타당치 않다.
- 살정제가 포함된 피임법 (피임용 젖마, 살정제 사용)  
대신 다른 피임법을 권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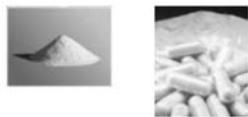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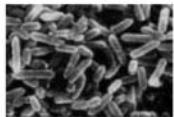
### Probiotics: 정의

- World Health Organization:  
“live microorganisms which when administered in adequate amounts confer a health benefit on the host”

(적정한 양을 섭취하였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균)

## Probiotics : 종류

- *Lactobacillus* sp.
  - *reuteri*
  - *casei*
  - *ramnosus*
  - *acidophilus*
- *Streptococcus* sp.
- *Bifidobacterium* sp.
- *Saccharomyces boulardii* (non-human)



## Probiotics; 작용 기전

- 항균물질 (젖산, bacteriocin, 과산화수소) 생산
- 세포 표면에 오로감염균의 부착 억제 (biosurfactant)
- 면역 반응을 비특이적으로 증강시킴

## Probiotics: 유통

Ratings: A: strong B: good C: fair

| Rating the Evidence        | Floch et al (200b) | Natural Standard (200b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Infectious diarrhea        | A                  | B                       |
| AntiBx-associated diarrhea | A                  | C                       |
| Diarrhea prevention        | B                  | B                       |
| IBS                        | C                  | B                       |
| Atopic dermatitis/Allergy  | B?                 | B/C                     |
| Ulcerative colitis         | C                  | B                       |
| <i>H pylori</i> infection  | C                  | A                       |
| Bacterial vaginosis        | C                  | C                       |
| UTIs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C                       |

Floch, et al. Recommendations for Probiotic Use. J Clin Gastro. 40(3), 200b  
www.naturalstandard.com

## Probiotics vs. Antibiotics

### • Antibiotics

- 병원균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죽인다.
- 정상 세균층도 피해를 끼친다.
- 내성균 발생을 증가시킨다.
- 부작용 발생 가능.

### • Probiotics

- 좋은 균을 이용하여 건강에 도움을 준다.
- 암생제와 사용으로 파괴된 정상 세균층 복원.

## Probiotics: 사용시 고려할 점

- 어떤 균, 어떤 제품이 좋은가?
- 얼마큼 먹어야 좋은가?
- 얼마나 먹나?
- 부작용은 없나?
- 비용은?

## 면역강화 예방 (immunoactive prophylaxis)

- 오로감염 세균을 죽여 만든 유해물을 투여  
→ 감염 감소성 ↓, 속주의 방어능력 ↑
- 백신이라기 보다는 면역자극(immunostimulant)
- Uro-Vaxom®
  - 오로감염 대장균 양연영을 추출하여 제조한 균체 유해물
  - 대장균에 대한 특이적인 항체 분비를 막진
  - 체액성 및 세포성 면역계 활성화
  - 3개월 간 1일 1회 아침 공복에 60mg 복용
  - 4.26회 vs. 0.35회

## 결론

- 재발성 요로 감염 예방을 위한 우선 고장
  - 젊은 여성: 피임법의 대체 (살정제 사용 자제)를 우선 고장
  - 폐경 후 여성: 에스트로겐 질 저약
- 앞의 예방법이 실패한 경우 암생제 예방요법 고려
  - 자속암생제 예방요법 혹은 성간개 후 암생제 예방이 효과적
  - 장기사용에 따른 암생제내성 유발, 약제 부작용 발생 가능
  - 선택적 암자에서 단기간의 자가치료 고려  
→ 예방적암생제 장기 복용은 피할 수 있음

## 결론

- 면역강화예방 (Uro-Vaxom<sup>®</sup>)도 효과적
- 크랜베리, 프로바이오틱스 → 보다 많은 임상 연구 필요
- 생활습관 고정의 예방요과 ???  
(물 많이 마시기, 성간개 후 배뇨, 배뇨/비뇨 후 앞에서 뒤로 닦기,  
소변 참지 않기, 육조에서 물을마지 않기 등)